

아세안 2020: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한 아세안공동체 5주년

이 재 현*

국문초록

2020년 아세안은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처럼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협력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인적 이동이 통제된 지역 전체의 위기, 국가마다 부족한 자원 등 코로나19 위기의 특성에 아세안의 느슨한 제도라는 특징도 겹쳐 나타난 결과다. 2021년 이후 ‘아세안종합회복계획’에 따른 코로나19와 보건 안보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개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 모든 부분에 걸쳐 2020년은 공동체 형성 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었고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다. 아세안 차원의 공동체 건설과 별개로 아세안을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은 미-중 경쟁 속에 더욱 불확실성을 더했다. 경제 역시 코로나 위기의 여파로 아세안 국가들은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연말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이 위기 대응에 대한 희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의장국인 베트남 주도로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가 발표된 것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한-아세안 관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건-방역협력에 주력했고,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 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는 등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aelee@asaninst.org.

주제어: 코로나19, 아세안, 아세안공동체, 미-중경쟁, 역내포괄적경제협정, 아세안 정체성, 신남방정책플러스, 2020년

I. 서론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2020년을 돌아보면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COVID-19)의 여파가 컸다. 베트남 등 몇몇 국가는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를 잘 통제했다고 평가받는 반면 몇몇 다른 국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또 다른 몇몇 국가들은 국가 능력에 비해 너무 적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로 인해 통계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초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했다고 평가받았던 편에 속하는 몇 국가에서는 2020년 말로 다가오면서 확진자가 급증해 2차, 3차 확산을 겪고 있다.

이런 뜻밖의 코로나 사태에 따른 혼란과 좌절 속에 아세안은 아세안공동체 선언 5년을 맞았다. 2015년 말 아세안 정상들이 선언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는 5년을 딱 채우고 2021년 6년째로 접어든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아니었으면 2020년 한해는 아세안공동체 5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로 바빴을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아세안은 아세안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국가 단위로 긴급한 코로나19 대응 속에 제대로 아세안공동체 5년을 돌아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아세안공동체, 아세안의 통합을 위한 일상적인 노력과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세안공동체 형성 5년 역시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아세안 연계성 등 분야별로 나름의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해 아세안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돌아본다. 먼저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강대국 경쟁에 따른 전략적 환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세안 정치안보협력 분야 혹은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와 관련해 2020년을 되돌아볼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각각 2020년 아세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신남방정책의 진전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한-아세안 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의 전망에 대해서도 결론에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II. 아세안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국적을 불문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월 13일로, 중국에서 온 여성이 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고 왕래가 비교적 많은 대륙부 국가인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1월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비슷한 지리적 위치의 라오스, 미얀마에서는 3월에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해양부 동남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는 이미 1월에 첫 확진자가 나온 반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에서는 3월이나 첫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지 1년여가 지난 2021년 1월 기준 확진자 수로는 인도네시아가 약 83만 명으로 아세안에서 가장 많고 필리핀이 49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망자 수 역시 인도네시아가 2만 4천 명, 필리핀이 1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고 있다. 반면 라오스, 캄보디아는 아직 사망자에 관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¹⁾

초기 코로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은 주로 정보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세안 사무국은 주기적으로 ‘위험평가 보고서’(Risk Assessment Report)를 발행, 이를 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²⁾ 2020년 1월 20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이 보고서는 아세안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 업데이트, 각국의 여행 경보 및 제한 조치, 전 세계 확진 및 사망자 통계, 아세안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 일지, 각국의 발생 및 진행 상황 도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아세안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긴급대응 페이지에는 아세안 차원에서 코로나19 상황 관리를 위해 개최된 아세안 내 회의, 아세안과 역외 국가 사이의 협력 상황, 관련된 회의 자료, 성명서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ASEAN 2020b).

아세안은 꽤 이른 시점인 1월 30일 처음으로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AHMM: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를 소집했다.³⁾ 이 회의

-
- 1) Worldometer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검색일 1월 12일)
 - 2)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2021년 1월 11일자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다. 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er. 2021. “Risk Assessment for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COVID-19 to the ASEAN Region.” (https://asean.org/storage/COVID-19_Report-of-ASEAN-BioDiaspora-Regional-Virtual-Center_11January2021.pdf)을 볼 것.
 - 3) 감염병 관련 아세안의 협력과 대응은 아세안 보건장관회의의 소관 사항이고 그 하위에 고위급 회의를 두고 있으며 이 고위급 회의는 아세안 보건협력 아젠다인 ‘아세안 포스트 2015 보건개발 아젠다 2016-2020’을 관장한다. 한편 코로나19는 보건 문제인 동시에 재난 문제이기도 하다. 아세안 재난 대응의 정점에는 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AMMDM)가 있고, 재난관리 거버넌스는 ‘아세안 재난관리 및 위기 대응 협약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AADMER)’을 규정된다. 재난 대응의 실무는 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 ACDM)가 맡고 있으며, 재난 대응 최전선에는 아세안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HA Centre)가 있다. 2009년에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아세안 인도적 지원 조정관 (ASEAN Humanitarian Assistance Coordinator)의 권한을 부여하여,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맡고 상황을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ASEAN. “Working Together to Address Complex Health Challenges”

에서 아세안 보건장관들은 말레이시아 주도의 아세안 긴급대응 네트워크 (ASEAN Emergency Operation Network)를 가동해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로 하고 아세안+3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 ‘아세안 포스트 2015 건강개발 아젠다’ (APHDA: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2016-2020)에 따라서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고위급 보건회의(SOMHD: Senior Officials’ Meeting on Health Development)를 소집하기로 했다(ASEAN Secretariat 2020a). 이후 아세안 의장국 주도로 각종 성명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내 각 분야별 장관회의,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과 협력을 위한 정상 및 장관급 회의 등이 이어졌다.

<표 1> 코로나19 대응 관련 아세안 역내, 외 정상 및 고위급 회의

	구분	내용
아세안 역내	의장, 정상회의	2/14(의장성명), 2/20(아세안 조정위원회), 4/14(정상회의), 6/26(코로나 대응 하노이 행동계획), 7/27(정상회의)
	보건장관회의	1/30(보건장관), 3/13(고위급 보건회의), 5/1(보건장관)
	기타 장관회의	2/19(국방장관), 3/10(경제장관), 5/15(고위급 국방회의), 4/16(농업장관), 4/29(관광장관), 5/14(노동장관), 6/11(사회복지장관), 8/26(경제장관)
아세안 역외	아세안+3	4/7(보건장관), 4/14(정상회의), 6/4(경제장관), 8/26(코로나 대응 아세안+3 행동계획), 8/28(경제장관)
	양자 개별	2/20(중국, 외교장관), 3/20(EU), 4/4(일본, 경제장관), 4/26(미국, 외교장관), 4/30(미국, 보건장관), 7/6(호주, 외교장관), 7/16(중국, 교통장관), 8/28(EAS, 경제장관), 8/29(한국, 경제장관), 9/5(ASEAN, 외교장관)

<출처: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 정보와 Ferdinal M. Fernando 외 2020: 3-5>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health-ministers-meeting-ahmm/overview-2/>); ASEAN. 2018.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2016-2020. (<https://asean.org/storage/2018/12/16-ASEAN-Post-2015-Health-Development-Agenda.pdf>); ASEAN. “AADMER Work Program”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agreement-on-disaster-management-and-emergency-response-cop-to-aadmer/aadmer-work-programme/>); AHA 홈페이지. “About us” (<https://ahacentre.org/about-us/>) 참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아세안은 보건장관, 경제장관 뿐만 아니라 정상 차원, 그리고 역외 국가 (아세안+3 및 개별 국가)와 협력에 매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아세안 내에서도 두 차례 정상간 화상회의를 비롯해 관련된 경제, 농업, 노동, 사회복지, 그리고 국방장관 회의까지 소집되었다. 역외 국가와도 아세안+3 국가들과 협력을 위해 정상회의, 보건장관, 경제장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협력 의사가 개진되었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한국을 비롯, 미국,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폭넓은 협력을 시도했다.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들은 구체적 실행 대안보다 협력 의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다. 2월 1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은 아세안+3 국가와 협력,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HO 역할의 중요성, 아세안 내 정보교환과 조정의 중요성, 아세안 보건 분야의 긴밀한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ASEAN 2020b). 아세안+3 코로나 대응 정상회의도 역내 공급사슬 (supply chain) 유지의 중요성, 시장 개방성의 중요성, 개별 국가 경제 복원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 협력을 해나가자는 다짐을 했다(ASEAN 2020c). 그러나 대부분 회의들이 협력 의지를 확인할 뿐 구체적 실행으로 옮겨진 사항은 많지 않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의 제도들, 즉 보건장관회의, 재난 관련 장관회의, 아세안 재난관리 및 대응 협약, 아세안 재난 대응 메커니즘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성과를 낸 부분은 찾기 어렵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 실질적인 협력이 부족했던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인적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 간 실질적 협력은 매우 어려웠다. 또한 갑작스러운 보건 위기 속에 개별 국가들이 가진 제한된 자원과 역량은 국내 위기 상황 관리에도 불충분한 정도였고, 따라서 지역적으로

방역물자나 보건 역량을 공유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과거 아세안 지역에 있었던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독감처럼 문제가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라면 아세안 차원에서 특정 국가에게 관련 된 지원을 하고 아세안 차원의 협력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모든 국가들이 예외 없이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 협력이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아세안 내 협력이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국가 간 합의 내용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는 않는 연성 지역주의라는 특성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영향을 준다. 오래된 지역협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가 주권 보존을 선호하는 아세안의 특성상 아세안 내 협력은 개별 국가의 선의에 맡겨지고 강력한 협력의 실행도 어렵다(Capie 2017: 115-124). 뿐만 아니라 이런 아세안의 연성 지역주의 특성으로 인해 보건 문제를 책임지는 아세안 보건장관회의도 실질적 협력을 만들어 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을 보면 각급 장관회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실행하도록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⁴⁾ 무엇보다 보건 관련 협력 제도, 재난 관련 협력 제도 역시 상황을 평가하고 긴급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되는 속에 나름 아세

4) 아세안 헌장에 따르면 분야별 아세안 장관회의(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는 자신의 분야에 관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합의와 결정을 이행하고, 각 분야에서 아세안 통합과 공동체 건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아세안 헌장 10조 1항). 그 상위의 아세안공동체위원회(ASEAN Community Council)와 아세안 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uncil) 역시 자체 결정과 실행보다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결정 사항 이행 확인과 장관회의 간 조정(공동체위원회),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와 정상회의 합의, 결정 실행 조정(조정위원회)을 주 임무로 한다(아세안 헌장 8조 2항과 9조 4항). ASEAN 2008. The ASEAN Charter. (<https://asean.org/storage/2012/05/The-ASEAN-Charter-14042020-final.pdf>) 참조.

안 차원의 대응도 있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아세안 종합회복계획(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이 계획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지역적 위기를 미래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ASEAN 2020d).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를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a crisis like no other)로 규정하고 극복을 위한 보건, 인간안보 차원의 전략(보건 체계의 강화와 인간안보의 강화)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전략(아세안 내 시장과 외부 경제통합의 잠재력 극대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속 가능하고 강한 회복력을 가진 미래)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자체의 극복을 위해서 아세안은 지역 비상 의료용품 비축 제도(Regional Reserve for emergency medical supplies)와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펀드(Covid-19 ASEAN Response Fund), 미래 보건 위기 대비를 위한 표준 대응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future public health emergencies) 등에 관한 합의도 만들어 냈다(ASEAN 2020e). 지난 협력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아 아세안 차원의 대응을 하기에 충분한 제도들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아세안의 한계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Ⅲ. 강대국 경쟁과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를 선언하고 이때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규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서를 생산했다. 이 문서들은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 각 분야(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별 청사진(blueprints), 그리고 이후 추가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Master Plan for ASEAN Connectivity 2025),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등이다.⁵⁾ 이 7개의 문서가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구체적인 근간을 이룬다. 이 중에서 아세안공동체를 이루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 비전 2025의 중간평가 시점이 2020년에 도래했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는 중간평가 보고서의 사전 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생산했고(ASEAN Secretariat 2020b), 사회문화공동체는 2020년 11월 중간평가보고서를 펴냈다. 경제공동체는 2020년 평가를 거쳐 2021년 상반기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안보공동체 중간평가보고서는 지난 5년간 정치안보공동체 형성의 5개 분야, 즉 1) 규칙 기반, 사람 지향, 사람 중심 공동체(rule-based, people oriented, people centred Community), 2)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된 지역(peaceful, secure and stable Region), 3) 역동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속의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in a Dynamic and Peaceful Region), 4) 아세안 제도적 능력과 존재감 강화(strengthening ASEAN Institutional Capacity and Presence), 그리고 5) 실행과 평가 부분에서 공동체 형성을 추진해왔다. 5년 만에 이루어진 중간평가 역시 이 분야별로 범위, 영향, 지속가능성, 추진 기간, 취소가능성, 목표달성 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졌다(ASEAN Secretariat 2020b: 2-5). 이 보고서는 전체 290개 추진 과제 중 278개가 이미 추진 중이고 따라서 96%의 이행률을 보인다고 평

5) IAI의 경우 2020년 11월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Work Plan 4단계가 채택되었다.

가하고 있다.⁶⁾ 다만 이 이행률은 추진 과제의 이행률이 지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완성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2025년 아세안공동체 선언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post-2025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11월 화상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아세안 정상들은 2020년 한해 제출된 세 부문의 아세안공동체 중간평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4단계 계획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plan VI), 아세안공동체 포스트 2025 비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보고서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uncil)로 하여금 아세안공동체 포스트-2025 비전(ASEAN Community Post 2025 Vision)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아세안공동체위원회(ASEAN Community Council)도 이 비전 작성에 참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공동체 포스트-2025 비전과 관련 문서 작성을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High-Level Task Force)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⁷⁾ 이런 내용은 아세안공동체 포스트-2025 비전에 관

6) 정치안보공동체 중간평가는 중간평가를 하는데 있어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전체적인 이행률 96%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96%라는 수치는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에 나타난 이행방안을 실행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인권 보호 항목(A.1.5)의 경우 첫 번째 이행방안은 2009년까지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을 완성하여 아세안 인권 기구의 형성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와 그 TOR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행이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같은 항목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과 시민의 이해 증진과 같은 항목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실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이 이행률이라는 수치는 청사진에서 제시한 과업에 관한 이행률이 지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완성 정도는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7) 아세안이 주요 비전이나 이행계획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Post-2015 아세안공동체 비전(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의 경우 이미 2013년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정상들이 평가한 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아세안공동체가 공식 선포되기도 전인 2012년 혹은 2013년 초부터 정부 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 이행 정도를 정상들이 2013년 말 정상회의에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3-4년 전부터 중요 비전이

한 하노이 선언(Hanoi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25 Vision)에 담겨있다(ASEAN 2020f).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건설을 둘러싼 지역 환경은 여전히 아세안에 우호적이지 않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추진과 무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미-중 전략경쟁은 지속되었고, 아세안은 이런 미-중 전략경쟁이 가져온 전략적 불확실성에 계속 노출되었다. 특히 2020년 한해 미-중 전략경쟁은 민주주의 vs. 권위주의라는 이념적 성격을 띠면서 더욱 격화되었고 그 속에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큰 압력에 처했다.

2020년 들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단순한 무역, 기술 경쟁을 넘어서 체제 경쟁으로까지 번졌다.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공공연하게 중국이라는 국가 명칭이 아닌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Mike Pompeo)는 2020년 화상 회의로 열린 아세안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 우리와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walk over)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대중국 전선에 참여를 촉구했다(Bloomberg 2020).

2018~19년 미국과 중국 양자 사이 기술 경쟁, 무역 전쟁에 국한되었던 경쟁이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남중국해와 동남아로까지 확산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에서 건설사업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다(Gan 2020).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고,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중국의 화웨이(華爲, Huawei)를 배제한 독자

나 이행계획에 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5G 네트워크인 클린네트워크(Clean Network)에 동남아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Nguyen Phoung 2020).

이런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동남아를 무대로 펼쳐졌다. 코로나 직전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주석은 라오스, 미얀마를 순방하고,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Xinhua 2020 a와 b; Zhou 2020). 코로나19 사태 터진 직후 왕이(王毅, Wang Yi) 외교장관은 동남아 국가를 순방하며 동남아 국가와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앞서 언급한 폼페이오의 ARF 발언이 있던 즈음에는 중국 국방장관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미국의 비난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Chew 2020). 2020년 10월 동남아를 다시 방문한 왕이 외교장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추진하는 4자안보대화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쿼드)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관 나토(NATO)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냉전적 사고 방식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그룹의 국가 간 대결을 부추기며 지정학적 경쟁을 가져온다”고 미국을 비판했고,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 전략 동참을 경계했다(Jaipragas and Sikimaran 2020).

이런 미-중 경쟁에 대해 아세안은 표면적으로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Lee Hsien Loong) 총리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이 아시아에서 배타적 영향권을 구축하려 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 세기(Asian Century)를 위협에 빠뜨릴 수십 년의 대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Lee 2020).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위(Jokowi) 역시 UN 연설에서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폐허 위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며 “(미-중 사이) 분리와 경쟁이 지속되면 안정과 지속가능한 평화의 축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Indonesia 2020).

IV. 아세안 경제통합: 경제위기와 RCEP

아세안 경제 역시 2020년 한해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웠다. 2019년 말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타결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020년 아세안 경제는 대체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웠다. 아세안 전체적으로 2020년 경제성장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코로나19 직후에 예상되었던 -2.7%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브루나이(+1.4%), 미얀마(+1.8%), 베트남(+1.8%) 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국이 -8.0%, 필리핀이 -7.3%, 싱가포르가 -6.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아세안 평균을 끌어내리고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20, 25).⁸⁾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적으로 2020년 1/4분기 무역은 전년 대비 12.4% 줄어들었고,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해외투자 역시 2020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2.9% 축소된 543억 달러에 그쳤다(Tran

8) 이 통계와 이어 나오는 <표 2. 2020년, 2021년 아세안 국가 GDP 성장 전망차>에서는 ADB가 2020년 9월 펴낸 예상치를 사용했다. ADB가 2020년 12월에도 업데이트를 펴내기는 했지만 이 업데이트에서는 동남아의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만을 포함하고 있어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4개국과 올바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10개국 모두를 포함한 최종 추정치(2021년 1월 시점)인 2020년 9월 추정치를 사용한다.

2020: 3). 코로나19의 여파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아세안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5.5%의 성장이 예상되며,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은 모두 6% 이상의 성장을 기록 아세안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Asian Development Bank 2020: 25).

<표 2> 2020년, 2021년 아세안 국가 GDP 성장 전망치

국가	2020년 GDP 성장 (9월 예상치)	2021년 GDP 성장 (9월 예상치)
브루나이	1.4	3.0
캄보디아	-4.0	5.9
인도네시아	-1.0	5.3
라오스	-2.5	4.5
말레이시아	-5.0	6.5
미얀마	1.8	6.0
필리핀	-7.3	6.5
싱가포르	-6.2	4.5
태국	-8.0	4.5
베트남	1.8	6.3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2020: 25.

2020년 경제협력에서 아세안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RCEP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RCEP의 타결과 서명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세안 의장국의 단골 공약 중 하나였다.⁹⁾ 2011년 아세안의 제안으로

9) RCEP은 기존 중국과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고 아세안 중심의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기존 아세안+3을 기반으로 아세안+한, 중, 일 3개국의 지역 FTA를, 일본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를 기반으로 16개국의 지역 FTA를 각각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계획은 중일 사이 상호 견제, 전형적인 제도 간 균형의 문제로 사실상 좌초했다. 아세안은 이런 빈틈을 파고들어 2011년 아세안 중심의 새로운 지역 FTA인 RCEP을 제안했었다.

시작된 이 지역 자유무역협정은 2019년 말 태국 의장국 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 국가 간 최종 타결이 이루어졌고, 베트남이 의장국을 맡은 2020년 말 15개 참여국이 화상으로 개최한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되었다. 이로써 아세안이 2011년 제안한 지 거의 10년 만에 GDP 합 26조 달러로 글로벌 GDP의 30%를 차지하고, 인구, 세계 무역의 각 30%를 차지하는 아세안 중심의 거대한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모습을 드러냈다(Mohamad 2020). RCEP은 향후 1~2년 사이 개별 참여 국가들의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수현 외 2020: 3).¹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RCEP은 타결에 8년, 서명까지는 9년의 시간이 걸렸다. RCEP의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은 미-중 무역 경쟁의 심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지역 국가들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미-중 무역경쟁, 기술경쟁, 그리고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의 전략,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런 위기의식 고조가 위기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어 냈고, 2019년 합의에 이르게 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개별 국가 차원의 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적 협력,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결국 미-중 경쟁으로부터 코로나 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1998년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의식이 아세안+3의 등장을 촉진했던 것(Ruland 2020) 처럼 RCEP 타결과 서명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 RCEP 합의 사항을 보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국내적 비준 절차가 끝나면 RCEP의 효력이 발휘된다.

V.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

사회문화 부문에서 2020년에 가장 눈여겨 볼만한 두 가지 사항은 2025년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중간평가(Mid-term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와 2020년 한해 의장국인 베트남이 추진한 아세안 정체성 프로젝트다. 먼저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중간평가는 2025년까지 아세안이 목표로 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문서다. 이 평가보고서는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의 모든 항목을 망라해서 71.8%의 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며 전체의 24.8%는 완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각 항목 별로 추진 중/완결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관여와 혜택(engages and benefits the people)은 각각 78.6%, 23.0%, 포용(inclusive)은 78.4%, 33.6%, 지속가능성(sustainable)은 63.3%, 11.6%, 복원력(resilient)은 67.1%, 14.8%, 그리고 역동성(dynamic)은 73.9%, 21.1%의 추진/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ASEAN 2020g).

2020년 이 중간평가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이 추진한 아세안 정체성 관련 사항이다. 베트남은 2020년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예년에 비해 아세안의 정체성 문제에 큰 관심을 두었다. 2020년 1월 의장국을 수임한 베트남 응우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한 기조연설을 보면 2020년 베트남이 내 건 아세안 슬로건인 “Cohesive and Responsive ASEAN”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설명한다. 이 중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고양”(raise the awareness of ASEAN Community and Identity)의 항목이 있다(Nguyen Xuan Phuc 2002). 아세안 인식 고양에 관해서는 과거 의장국들도 언급한 바 있지만, 특히 베트남은 2020년 이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의장국 베트남의 관심은 2020년 11월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The Narrative of ASEAN Identity)라는 문서가 채택되는 결실을 보았다(ASEAN 2020h). 이 문서는 아세안공동체를 규정하는 아세안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내러티브가 “아세안 정체성의 근간”(basis of ASEAN Identity)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의 정체성을 두 가지 측면 즉, ‘구성된 가치’(constructed values)와 ‘물려받은 가치’(inherited values)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가 1967년 아세안 형성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온 아세안의 정체성이라면, 후자는 아세안이라는 인위적인 단위가 아닌 개별 국가, 사회, 종족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포괄하고 있다. 전자가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성적(constructed)이라면 후자는 근원적(primordial)이고 종족문화적(ethnocultural) 측면들을 포괄한다. 이 문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가치와 전통, 어떤 구성된 가치가 아세안 정체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세안 형성 이후 만들어진 정체성과 아세안 이전 개별 사회들이 견지했던 전통 간 타협,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포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VI. 한-아세안 관계

2020년 초 신남방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2017년 말부터 추진된 신남방정책이 2년을 넘어가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정도를 고려할 때 업그레이드된 대 아세안 정책이 나올 시점이었다. 더욱이 2019년 말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

르고 이 여세를 몰아 2020년에는 신남방정책 2.0 혹은 신남방정책 2단계라는 형식으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신남방정책이 펼쳐지고 구체적인 성과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이재현 2020: 170-176).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런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인적 이동이 거의 전면 금지되다시피 하고 물적 이동 역시 제한적인 상태에서 인적, 물적 이동이 필수적인 국가 간의 협력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도로 의미 있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대신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협력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국은 초기 비교적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와 협력을 모색했다. 6월에는 개별 국가 차원으로 부분적으로 이뤄지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의 코로나19 진단 역량강화 사업’을 발표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총 500만 달러에 달하는 진단키트, 유전자 증폭장비, 개인 보호 장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성혜미 2020). 뿐만 아니라 아세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에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외교부 보도자료 2020/6/17).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 자리에서 한국이 글로벌 차원 코로나19 백신 공급 노력인 코백스(COVAX)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남아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박경준 2020).

코로나19로 인해 신남방정책의 물리적 추진이 어려워진 사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신남방정책 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구상했다(청와대 2020). 2019년 말, 2020년 초 신남방정책 2.0 혹은 신남방정책 2단계 등으로 불렸던 업그레이드된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것이다.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기존 사람, 번영, 평화라는 3P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여기에 5개의 추진 기조

즉, 1) 사람 중심성, 2) 상생 협력, 3) 선택과 집중, 4) 연계 협력 강화, 5) 지속적 이행 약속을 도입했다. 이어 기존에 3P 원칙하에 다양하게 펼쳐졌던 한-아세안 간 협력 사업을 새롭게 정리해서 7대 전략 방향, 즉 1)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2)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3) 쌍방향 문화 교류, 4) 상호 호혜적,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5) 농어촌 개발 및 도시 인프라 개발, 6) 미래산업 분야 협력, 7) 안전하고 평화로운 아시아공동체를 제시했다.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 신남방정책은 3년을 지나 이제 2021년 4년 차를 맞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이제 1년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2021년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추진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드러내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보여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강화 의지는 협력의 구체적 결과와 상관없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한국의 대외 환경과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많은 변화와 변동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 정부와 달리 아세안 및 신남방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는 큰 변화 없이 견지되었다.

남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를 넘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이 정부마다 바뀌거나 단절은 거듭하는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해왔다. 이런 아세안 국가들의 시각은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 추진을 어렵게 했고 신남방정책 추진 초기에 이런 점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Kuik and Hoo 2020). 이런 점을 거울삼아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남은 기간 동안 신남방국가로 향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 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식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 역시 고민해야 한다.

VII. 결론

2020년 한해 아세안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서 한해를 보냈다. 이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개발 국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뭇 아세안이라는 지역 협력체 차원에서도 노력은 있었다. 아세안이 제도적으로 개별 국가의 코로나 극복에는 큰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었다는 증거는 크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초기부터 빠르게 정상, 장관 그리고 각 분야별로 회의를 소집 대응을 모색한 것까지 폄하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실질적인 도움은 못 되었지만 연말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코로나 대응, 그리고 코로나 이후 또 다른 지역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나뭇의 대응 틀을 갖추었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미-중 경쟁이라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나뭇 공동체 건설로 가는 꾸준한 노력을 했다. 공동체 선언 5주년을 맞아 공동체 별로 중간평가도 실시했고, 경제적으로는 아세안 주도의 RCEP을 마무리하는 성과도 있었다. 장기적으로 아세안공동체 정체성의 기초를 다지려는 작업도 2020년에 행해졌고, 그 결과로 ‘아세안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라는 문서에도 합의를 보았다. 인적, 물적 이동을 차단한 코로나의 여파 속에 코로나 대응 관련 협력을 제외한 한-아세안 협력, 신남방정책 협력은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보다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연말 발표하고, 코로나 대응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아세안 협력의 방향을 잡았다.

2021년 한해 아세안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전 세계 다른 국가, 지역과 마찬가지로 백신 공급과 코로나 종식, 그리고 경제 회복이란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이미 몇몇 국가들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러시아와 백신 관련 협력을 하고 있고 공급도 받고 있다. 싱가포르

르에서도 총리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개도국 동남아 국가들이 2021년 얼마나 안전한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말에는 아세안 종합회복계획이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특히 보건 분야 협력 시스템이 얼마나 더 정교하게 갖추어졌는지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퇴임이 미-중 전략경쟁의 끝은 아닐 것이다.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와 다른 방향으로 미-중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등 보다 원칙에 입각해 지역 국가들과 연대를 통한 중국 압박이란 방향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Toosi 2020).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잠식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피봇과 유사한 관여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여 정책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민주주의, 인권 등의 원칙이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최소 몇몇 국가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런 마찰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중국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어쨌든 2021년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의 추진 방향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인 아세안 국가들의 향후 몇 년간 전략적 대응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서는 지역적으로 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반등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별로 RCEP의 비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등이 관심사가 될 것이다.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공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면 아세안 국가의 경제도 동반하여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RCEP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와 미-중 전략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위기 속에서 과거 지역적

위기가 지역 다자협력을 촉진했던 것처럼 RCEP을 계기로 지역적 위기에 대응하는 다자협력의 기운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을지 예도 관심이 모아진다.

〈참고문헌〉

- 박경준. 2020. “문대통령 ‘개도국 코로나백신 지원에 1천만 달러 기여할 것.’” 『연합뉴스』 11월 13일.
- 성혜미. 2020. “한국 정부, 아세안 10개국에 코로나 진단키트·방역품 한아름.” 『연합뉴스』 6월 16일.
- 오수현·라미령·연원호. 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3: 36.
- 외교부 보도자료. 2020. “김건 차관보, 아세안 10개국 고위급 아세안 대표들과 양자 화상회의 개최.” 6월 17일자.
- 이재현. 2020. “아세안 2019: 어수선한 주변 환경, 꾸준한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연구』 30(1): 157-180.
- 청와대. 2020.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482> (검색일: 2020.12.28)
- AHA 홈페이지. “About us.” <https://ahacentre.org/about-us/> (검색일: 2021.1.9).
- 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er. 2021. “Risk Assessment for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COVID-19 to the ASEAN Region.” https://asean.org/storage/COVID-19_Report-of-ASEAN-BioDiaspora-Regional-Virtual-Center_11January2021.pdf (검색일: 2021.1.14)
- ASEAN Secretariat. 2020b. “The APSC Blueprint 2025: A Preliminary Report on Its Mid-Term Review.” *APSC Outlook* 2(1): 1-19.
- ASEAN Secretariat. 2020a. “ASEAN Health Sector responds to 2019 Novel Coronavirus threat.” <https://asean.org/asean-health->

- sector-responds-2019-novel-coronavirus-threat/ (검색일: 2021 .1.12)
- Asian Development Bank. 2020.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0 Update: Wellness in Worrying Times*. Manila: ADB.
- Bloomberg. 2020. "Pompeo Urges Southeast Asia to Cut Ties With 'Bully' China Firms." *Bloomberg* 10 September.
- Capie, David. 2017. "Patterns and Paradoxes in ASEAN's Institution Build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head." Marie Elka Pangestu and Rastam Mohd Isa (eds.), *ASEAN Future Forward: Anticipating the Next 50 Years* Kuala Lumpur: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SIS) Malaysia. 115-124.
- Chew, Amy. 2020. "South China Sea: China's Defence Minister Heads to Brunei, Philippines after Visits to Malaysia and Indonesia." *South China Morning Post* 8 September.
- Fernando, Ferdinal M., Jennifer Fances De La Rosa and Mary Kathleen Quiano-Castro. 2020. "COVID-19: A Collective Response in ASEAN." *The ASEAN* 1: 30-35.
- Gan, Nectar. 2020. "US sanctions 24 Chinese companies over South China Sea island building." *CNN* August 27.
- Jaipragas, Bhavan and Tashny Sukumaran. 2020. "Indo-Pacific Nato: China's Wang Yi slams US-led 'Quad' as underlying security risk at Malaysia meeting." *South China Morning Post* 13 October.
- Kuik, Cheng-Chew and Chiew-Ping Hoo. 2020. "National Commentary: A View From Southeast Asia." *The Asan Forum*. 7 January <http://www.theasanforum.org/a-view-from->

malaysia-2 (검색일: 2020.1.10)

Lee, Hsien Loong. 2020. “The Endangered Asian Century: America, China, and the Perils of Confrontation.” *Foreign Affairs* 99(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Wang Yi: Foreign Ministers of China and ASEAN Agreed to Work Closely and Support Each Other to Jointly Overcome Difficulties with Strong Confidence.” Media Statement. (20 February) <http://caeisp.org.cn/news/wang-yi-zhong-guo-dong-meng-wai-chang-yi-zhi-ren-wei-yao-tong-zh-ou-gong-ji-xiang-hu-zhi-chi> (검색일: 2021.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Indonesia. 2020. “Statement by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 Joko Widodo at the General Debate of the 7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New York.” Media Statement (22 September) <https://kemlu.go.id/portal/en/read/1715/berita/statement-by-president-of-the-republic-of-indonesia-he-joko-widodo-at-the-general-debateof-the-75th-session-of-the-united-nations-general-assembly-new-york-22-september-2020> (검색일: 2021.1.8)

Mohamad, Juita. 2020.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hat this means for ASEAN and Malaysia.” *ISIS Policy Brief* No. 6-20.

Nguyen, Phuong. 2020. “Pompeo tells Southeast Asia to stand up to China, shun its firms.” *Reuters* September 10.

Nguyen, Xuan Phuc. 2020. “Keynote Speech on Vietnam’s 2020 ASEAN Chairmanship.”(6 January) <https://www.asean2020>.

vn/thong-diep-cua-thu-tuong (검색일: 2020.1.8)

- Ruland, Jurgen. 2000. "ASEAN and the Asian crisi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consequences for Southeast Asian regionalism." *The Pacific Review* 13(3): 421-451.
- Toosi, Nahal. 2020. "Are you on the list? Biden's democracy summit spurs anxieties - and skepticism." *Politico* November 28.
- Tran, Tuan Anh. 2020. "ASEAN Economic Community in 2020." *ASEAN Economic Integration Brief* 8: 1-8.
- VOA News. 2020. "Pompeo Wraps 5-Nation Asia Visit in Vietnam, with Recurring Anti-China Theme." *VOA News* October 30.
- Worldometer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검색일: 2021.1.12)
- Xinhua. 2020. "Cambodian PM's special China tour demonstrates unbreakable friendship: Xi." *Xinhua* 05 February.
- Xinhua. 2020. "Xi says China, Laos enjoy shared future." *Xinhua* 6 January.
- Zhuo, Laura. 2002.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raps up Myanmar visit with string of infrastructure deals, including strategic Indian Ocean port." *South China Morning Post* 18 January.

아세안 문서

- ASEAN. "AADMER Work Program."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agreement-on-disaster-management-and-emergency-response-cop-to-aadmer/aadmer-work-programme> (검색일: 2020.12.28)
- ASEAN. "Working Together to Address Complex Health Challenges."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

- health-ministers-meeting-ahmm/overview-2 (검색일: 2020.12.29)
- ASEAN. 2008. *The ASEAN Charter*. <https://asean.org/storage/2012/05/The-ASEAN-Charter-14042020-final.pdf> (검색일: 2021.1.5)
- ASEAN. 2018.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2016-2020.” <https://asean.org/storage/2018/12/16-ASEAN-Post-2015-Health-Development-Agenda.pdf> (검색일: 2021.1.6)
- ASEAN. 2020a. “ASEAN Health Sector Efforts in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ttps://asean.org/?static_post=updates-asean-health-sector-efforts-combat-novel-coronavirus-covid-19) (검색일: 2020.12.28)
- ASEAN. 2020b. “ASEAN Chairman’s Statement on ASEAN Collective Response to the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 2019”(15 February) <https://asean.org/storage/2020/02/ASEAN-Chairmans-Statement-on-COVID-19-FINAL.pdf> (검색일: 2020.1.9)
- ASEAN. 2020c. “ASEAN Plus Three Plan of Action on Mitig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14 April) <https://asean.org/storage/2020/08/ASEAN-Plus-Three-Plan-of-Action-on-COVID19-FINAL.pdf> (검색일: 2020.12.29)
- ASEAN. 2020d.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https://asean.org/storage/FINAL-ACRF_adopted_37th-ASEAN-Summit_18122020.pdf (검색일: 2021.1.7)

- ASEAN. 2020e. “Terms of Reference - ASEAN Regional Reserve of Medical Supplies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https://asean.org/storage/54-Finalised-and-APPROVED-TOR_ASEAN-Regional-Reserve-for-Medical-Supplies.pdf (검색일: 2021.1.7)
- ASEAN. 2020f. “Ha Noi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25 Vision.” <https://asean.org/storage/2020/11/1-Final-Ha-Noi-Declaration-on-the-ASEAN-Communitys-Post-2025-Vision.pdf> (검색일: 2021.1.7)
- ASEAN. 2020g. “Mid-Term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Executive Summary.” https://asean.org/storage/2020/11/06-Executive-Summary.-MTR-ASCC-Blueprint-2025_.pdf (검색일: 2021.1.9)
- ASEAN. 2020h. “The Narrative of ASEAN Identity.”(12 November) https://asean.org/storage/2020/11/9-The-Narrative-of-ASEAN-Identity_Adopted-37th-ASEAN-Summit_12Nov2020.pdf (검색일: 2021.1.9)

(2021.1.15. 투고, 2021.1.25. 심사, 2021.2.10. 게재확정)

<Abstract>

ASEAN in 2020:

5th Anniversary of ASEAN Community amid COVID-19

LEE Jae Hyon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most important single issue in ASEAN 2020 was unexpected COVID-19 crisis. While concrete responses to the crisis differ state by state, ASEAN, as a collective entity, was not very effective in responding to the crisis. It was large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VID-19 crisis - ban on people movement, region-wide crisis, lack of national resources to fight COVID-19 on top of ASEAN's inherent loose institutional basis. It is crucial how ASEAN would navigate the crisis with the newly agreed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 The year 2020 was timing for mid-term reviews for 3 pillars of ASEAN Community: political-security, economic and sociocultural, which indicated fairly good progress in the past 5 year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dded strategic uncertainty for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COVID-19 brought about region-wide economic down and negative growth. It is interesting to watch i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r RCEP signed at the end of 2020 will be any help for 2021 economic recovery. The ASEAN chair 2020, Vietnam, pushed forward 'Narrative for ASEAN Identity' in the field of sociocultural

community building. ASEAN-Korea relationship was not able to escape from the impacts of COVID-19 crisis. The two partners, other than else, focused on a joint response to the COVID-19 in 2020. At the end of 2020, the Korean government revealed 'New Southern Policy Plus' as upgraded blueprint for ASEAN-Korea cooperation in the coming years.

Key Words: COVID-19, ASEAN, ASEAN Communit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RCEP, ASEAN identity, New Southern Policy Plus, 2020.